

##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호남예술제 개막



지난해 열린 제62회 호남예술제 한국창작무용부문에 참가한 광주예고 김종미양의 독무를 다중촬영한 모습.



송원초등학교 전율하양의 현대무용.



설레시오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가요곡 산조 연주.

### 63년 전통 종합예술제... 전국 대표 예술인 다수 배출

#### 5월 29일까지 무용·음악·국악·미술·작문 부문 경연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3회를 맞았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창간 3년 후인 1955년 개최하기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지금까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특히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제63회 호남예술제가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은 무용(클래식 발레·창작 발레·현대무용·한국창작무용·재즈 등), 음악(성악·기악·실용음악·양상블), 국악(기악·성악·가야금·타악 등), 합주(합창·기악), 미술·작문·만화와 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미술(회화·한국화), 작품(산문·시), 만화·일러스트(스토리만화, 캐릭터 등), 작문 부문 접수는 오는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경연은 초등부 5월 24일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공원, 중·고등부는 25일 우치동물원, 만화·일러스트는 20일 남부대에서 열린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새싹 그리기 축제’도 오는 6월 5일~8일까지 그림을 접수받는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art.kjmedia.co.kr)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 발행되는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호남예술제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들

의 꿈을 키워준 뒷받침이었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또 젊은 예술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호남예술제를 거쳐 간 인물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클래식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젊은 연주자들이 많다. 제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3위에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도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예술가다.

교육자로는 강숙자, 정애련, 박계, 조수현, 김애령, 김진숙, 김혜경, 서영화, 박행숙씨 등이 대표적이다.

무용 부문에서는 ‘한국 발레계의 대모’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다. 초종교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김 교수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한 한성우 등 수십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뉴욕에서 ‘WHITE WAVE-김영순 댄스 컴퍼니’를 이끌며 2001년부터 뉴욕을 대표하는 ‘뎀보댄스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영순씨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또 무용계 출신으로는 서자영, 김화례, 임지형, 김화숙, 김미숙, 임지형, 박준희, 정희자, 박선옥 교수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강영균·최영훈·배병우, 시인 고재중, 양성우씨 등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문의 062-220-0541. /전원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서양화가 정상섭 개인전 ‘봄바람 연가’

### 5월 6일까지 화이트 큐브갤러리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로 술한 이야기가 흐른다. 눈에 먼저 띄는 건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동백과 매화 등 화사한 꽃들이지만 숨은 그림처럼 감춰진 것은 정자며 나비, 벌, 새, 탐, 달 등 온갖 소재들이다. 전시 제목 ‘봄바람 연가’와 맞춤하게 전시장은 온통 봄이다.

서양화가 정상섭 작가 개인전이 오는 5월6일까지 광주시 매월동 화이트 큐브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작들은 화려한 색채의 화면이 돋보인다. 캔버스와 종이에 아크릴로 그려낸 꽃들은 가벼운 느낌으로 관람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한다.

조선대 서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지금까지 2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시 돌아보는 사람전’(북경 광주시립미술관 장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한국미술협회 이사, 광주시·대구시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관람시간 낮 12시30분~오후8시30분(수·일요일 휴관) 문의 062-385-03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람 불어 좋은 날’

## 놀이패 ‘신명’

### 오월상설무대

#### 5월 18일까지

#### 매주 금요일 5·18광장



광주의 대표마당극 단체인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은 20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오월상설무대-금요 456극장’(이하 금요 456극장) 상설공연을 진행한다.

‘금요 456극장’은 80년 오월 당시 상황을 마당극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오월정신을 알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의를 나누고자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놀이패 신명의 대표 작품인 마당극 ‘연젠가 봄날에’와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이다.

마당극 ‘연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항쟁의 아픔과 슬픔, 이에 대한 극복을 창작 탈 곳

소리와 춤 등을 매개로 형상화한 마당극이다.

1988년 초연 작품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은 신명의 대표적인 레파토리 작품이다.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이룬 투쟁의 공동체를 마당극으로 형상화했다.

놀이패 신명의 ‘금요 456극장’은 지역특화문화 거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장소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금요 456극장’ 공연은 20일,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마당극이 공연되고 5월 4일, 11일, 18일에는 마당극 이 공연된다. 문의 062-527-7295. /박성천기자 skypark@

## 문화집단 열혈지구 ‘놀이하는 꽃잠마’ 참가자 15명 모집

문화예술단체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2018 흥(興)놀이 프로젝트 놀이하는 사람들 No.4. 꽃잠마 모놀로그’ what is your true colors?’(이하 흥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며 성인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아줌마’ 인칭 대명사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본색(本色)을 찾아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흥놀이’ 프로그램은 문학, 연극, 인형극, 미술, 영상, 색채학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있다.

선착순 15명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010-4860-385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통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뱃님들